

# A Study on Sexual Representation Express in Women's Costume in the Late period of the Choson Dynasty

Byun, Ji-Youn\* · Chae, Keum-Seok

Sookmyung Women's University<sup>^</sup> · Sookmyung Women's University

The following thesis covers the social and cultural changes in sex and how it was perceived in the late period of the Chosŏn Dynasty. The overall purpose of the study is to closely examine the special qualities of costume in terms of aesthetics as well as sexual representations, and the primary factors in both social and cultural angles, which lead to various changes in the costume. Costume are examined based on the theories of sexual traditions and cultural aspects by psychologists who specialize in sex, and the methodological framework to analyze the reasons for such changes in costume is from the theories of cultural anthropology by Jean A. Hamilton's Unifying Metatheory.

1. Research indicates that sex effected the origin of costume and the two are closely related especially in terms of having two sides, modesty and immodesty; in other words, conceal or expose. Such representation is shown in the late period of the Chosŏn Dynasty through both asceticism and sensualism. The Methodology presented by costume researcher, Jean A. Hamilton, analyzes the social and cultural situation of the late period of the Chosŏn Dynasty with sub-system. It divides by technology, social structure and ideologies.

2. Indirect representations of sex culture is studied through marriage and a kisaeng systems of the late Chosŏn Dynasty. Also, the kisaeng system existed as a form of unlicensed prostitution to satisfy sexually frustrated men, and kisaeng's were not provided with any personal rights. In artworks, the upper class were prohibited to express sexual desires but the working

class was quite frank about sex. This is shown through literature, music, dance, paintings, popular at the time. Sexual desire is indirectly represented through architecture such as secret passageways and window-papers.

3. The sexual aspects of women's costume in the late Chosŏn Dynasty is studied by the designs of a Korean jacket, a skirt, underwear, adorn hair and ornament, and the aesthetics of costume is studied according to naturalism, asceticism, and sensualism.

4 Sexual changes shown in costume is analyzed with metatheory, which show that changes in costume is a result of the development of agriculture and the increase of working women. In addition, changes in overall social structure and the acceptance of confucianism, realism, etc. has resulted changes in costume ideologically, all representing sexual aspects of women's costume in the late Chosŏn Dynasty.

## 조선후기 여성 복식에 나타난 성적 표현성에 관한 연구

변지연\* · 채금석

숙명여자대학교\* · 숙명여자대학교

본 논문은 조선후기 성문화의 사회 문화적 변화를 살피고, 복식에 반영된 성적 표현성을 규명하여, 복식의 변화 요인을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살피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또한 복식의 변화요인을 분석하기 위한 방법론적 틀로는 문화인류학 이론에서 유래된 Jean A. Hamilton의 Unifying Metatheory를 적용하였다. Hamilton은 이 이론에서 하위체계를 기술, 사회 구조, 이데올로기로 나누었으며, 이를 토대로 조선 후기의 사회·문화적 상황을 분석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조선시대 후기의 성문화와 예술을 분석하였다. 먼저 성문화에 있어 혼인제도와 기녀제도를 통해 남성들에게는 자유와 범종을 여성들에게는 억압을 통해 성적으로 종속시키고 자유를 구속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예술분야에서는 상류층에서 성에 관한 표현을 금기시하였지만 서민층에서는 노골적으로 표출되어 문학, 음악과 춤, 회화, 건축 등에 간접적으로 표현되고 있었다.

2. 여성복식에 나타난 성적 표현성에 있어 저고리는 길이가 짧아져 가슴을 드러내는 선정적인 특징을 지녔으며, 이에 허리띠로 보이는 부분을 둘러 감아 여성의 민감한 허리의 선을 강조하였다. 치마에서는 저고리가 무척 짧아지면서 반대로 폭이 넓어지고 길이도 길어지는 하후형의 특징이 보여지는데, 이는 여성의 보이지 않는 부분의 성적 특징을 과장하는 형태로 보여지며, 거들치마의 착용으로 은폐에 대한 역설적인 노출 현상이 보여진다. 속옷에 있어서도 유교사상을 반영한 하의의 다양한 속옷이 등장하는데, 이는 여성들의 성적 폐쇄성을 반영한 듯 보이지만, 속바지 등을 겉으로 드러내 보이면서 폐쇄된 형식에 대한 가변적인 노출을 보여주고 있다. 두식에 있어서는 여성들

이 외출시 폐면용으로 항시 착용해야 했던 쓰개치마가 변형되어 나타나며, 착용 또한 감소됨을 알 수 있는데 이는 가려지지 않은 신체에 대한 욕망을 불러일으켰으며, 수식에 있어서는 성적인 흥분과 남성을 유혹하기 위한 노리개나 비녀 등이 등장하였다.

3. 마지막으로 이러한 조선후기 복식의 변화 요인을 해밀톤이 제시한 메타이론으로 분석하였다. 기술적인 요인으로서는 먼저 조선후기 농업기술의 발달로 여성들의 노동시간이 늘어나게 되면서 복식도 이에 맞게 변형되어 나타났는데, 일하기 편리한 거들치마나 두루치를 착용하였으며, 노동 중 편리한 모유수유를 위하여 가슴을 저고리 밖으로 내놓은 장 방법도 등장하였다. 또한 유리거울의 대중화로 여성들이 특정계층의 복식형태를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다. 사회구조는 크게 신분제의 변화와 축첩제로 나눌 수 있는데, 신분제의 변화로 지위 불일치의 갈등이 복식을 통해 보여졌으며, 신분 상승한 남성들이 유흥문화에 빠져 기방에 출입하면서 여성들의 복식은 남편을 지키기 위해 과감해졌으며, 이로 인해 기녀들의 복식은 남성들을 유혹하기 위한 성적특성을 더욱 과장하기에 이르렀다. 이데올로기에서는 조선시대 여성들의 유교를 통한 성적 억압이 복식을 통해 역설적으로 표현되었으며, 실학사상의 영향으로 복식의 단소화가 보여지게 되었다.

4. Metatheory로 분석한 복식의 표현된 성적 변화 요인은, 농업기술의 발달과 여성의 노동 참여에 대한 기회 증가로 복식에 기술적인 측면에 영향을 미쳐 반영되었으며, 신분제의 변화와 축첩제를 통해 사회구조적인 측면으로, 마지막으로 유교와 실학, 유행은 이데올로기 측면에서 복식에 영향을 주어 조선 후기 여자 복식에 성적 특성이 표현되어 졌음을 알 수 있었다.